

독일 총선 사회민주당 초박빙 승리

메르켈 총리 소속 기민·기사당 연합에 1.7%P 차이 16년만에 정권교체 시도...녹색당·자민당에 구애 전망

26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중도 우파 연합인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과 초박빙 접전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보수 연합에서 중도 좌파 정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는 유권자들로부터 연립정부 구성을 위임받았으며 16년 만에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기민·기사당 연합도 연정 구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7일 299개 선거구의 개표가 완료된 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은 25.7%의 득표율을 기록해 24.1%의 득표율을 올린 기민·기사당 연합(기민당 18.9%, 기사당 5.2%)을 1.6%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개표 내내 초박빙 접전을 펼친 두 정당은 각자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이 없는 한 사민당, 기민·기사당 연합 후보



올라프 숄츠 독일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가 26일(현지시간) 연방의원 총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베를린 당사에서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가운데 한 명이 이번 총선을 끝으로 물러나는 메르켈 총리의 권좌를 이어받는다.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는 "사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면서 "유권자들은 내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아르민 라셰트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는 "항

상 가장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총리를 배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민·기사당 연합 주도로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와 함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대연정을 이끌어온 숄츠 후보는 메르켈의 뒤를 이어 정부를 이끌 안정적인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유례없는 추격전에 성공했다.

올봄에만 해도 13%까지 떨어졌던 사민당의 지지율은 반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사민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 16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게 된다. 반면에, 올해 초에만 해도 지지율이 37%에 달했던 기민·기사당 연합은 유례없는 추락 끝에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설립 이후 역대 최악의 선거 결과를 얻었다.

녹색당은 14.8%를 득표해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제3당으로 올라섰고, 자유민주당(FDP)도 11.5%로 4년 전(10.7%)보다 선방했다.

의석수로 환산하면 전체 735석 중 사민당이 206석, 기민·기사당 연합은 196석(기민 151석, 기사 45석), 녹색당은 118석, 자민당은 92석, AfD는 83석, 좌파당은 39석을 각각 차지하게 됐다.

사민당과 기민당 모두 연정 구성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만큼, 두 정당은 각각 녹색당과 자민당과의 연정을 시도할 전망이다. 두 정당의 총리 후보는 모두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정 협상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 최고인민회의...대남 대화메시지 나올까

오늘 열려...청년교양보장법 제정 국무위원 등 교체 가능성도 거론

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시군급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다. 남한 영상물 등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이 이 같은 외부 문물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청년층을 지목하고 단속을 위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형량을 최고 사형으로 상향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이후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입법을 하는 셈이다.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도 눈길을 끈다. 시군발

전법 채택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열린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지역의 역할과 자립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자원화법 감독 상황 점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최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리병철이 국무위원직 위에서도 빠지고 다른 위원이 보선될 수 있고 내각 상(相)의 교체도 예상된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24~25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발신함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 연설이나 여타 방식으로 더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전례가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2019년 3월 선출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헌법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휴지 이어 이번엔 기름 사재기

영국 주유소 대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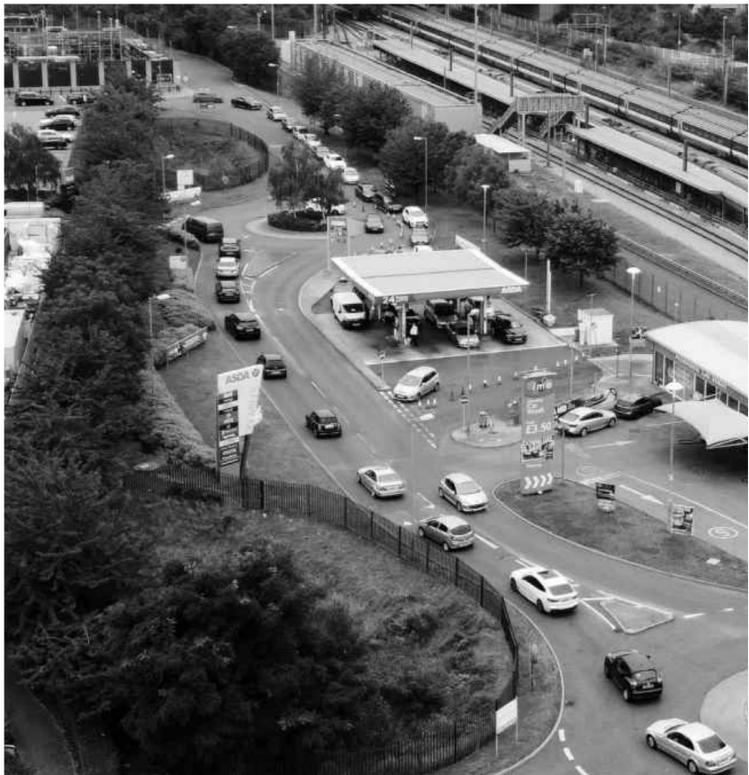
트럭기사 부족에 공급 차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휴지 사재기로 혼란을 겪은 영국에서 이번엔 주유소 대란이 발생했다. 금요일인 24일부터 전국의 주유소에는 주유탱크를 채우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기름이 떨어져서 아예 텅 빈 상반된 풍경이 나타났다.

BBC는 26일(현지시간) 주유소 내 군대를 들러도 기름을 넣지 못해 출근을 못 할 뻔한 햄프셔 지역 간호사와 토요일에 세 군데, 일요일에 여섯 군데를 갔지만 주유를 못 해서 월요일 회의를 취소했다는 케임브리지의 건설업체 직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새벽 5시에 30분을 기다려 겨우 주유했다거나 주유소 대기 차량이 뒤엉켜서 고속도로까지 정체됐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소셜미디어에는 지역에 기름이 남은 주유소가 있느냐는 질문이 계속 올라왔다. 슈퍼마켓 체인 아스다는 1인당 주유 한도를 30파운드(4만8천 원)로 제한하기도 했다.

주유소 대란은 BP 주유소에 기름을 나를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비자들끼리 기름통까지 들고 사재기에 나선 탓이다. 영국에 트럭 운전사는 원래 부족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이 대거 귀국하고 브렉시트로 신규 유입은 잘 안 되면서 더 심해졌다. 또 코로나19와 운전면허 관리 기관의 파업으로 인해 관련 운전면허 시험도 대거 취소됐다. /연합뉴스



영국 런던에 있는 한 대형마트주유소 앞에 25일(현지시간) 주유탱크를 채우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있다. 영국의 일부 주유소들이 트럭 운전 기사들의 부족에 따른 공급난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들끼리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모더나 이어 화이자 CEO도 "1년내 일상 복귀"

"변이 계속 출현...매년 집중 가능성"

코로나19 백신 제약사인 화이자의 최고경영자(CEO) 앨버트 블라가 26일(현지시간) 1년 내 일상생활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리는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1년 이내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언급이 코로나19 변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앞으로 백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를 볼 것이며, 최소 1년을 지속하는 백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매년 재

접종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정말 모른다. 데이터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블라리의 이런 언급은 최근 또 다른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의 대우형 종식 전망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방셀은 지난 23일 스위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접종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것이 '일상의 회복'을 뜻하는지 묻자 "1년 안에 그럴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방셀은 또 추가접종(부스터샷)이 1~3년마다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은 독감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일상의 복귀가 가능하며, 다만 주기적인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도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연합뉴스

WHO, 코로나19 기원 조사 재개 추진...새 조사팀 곧 구성

세계보건기구(WHO)가 중단 상태인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조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조사팀은 실험실 안전과 바이오안 전문가, 유전학자, 바이러스의 '중간 감염'에 정통한 동물 질병 전문가 등 20여명의 과학자로 꾸러질 예정이다.

중국과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새 증거를 찾는 조사팀 모집에 수백명이

지원했고, 이번 주 말까지 선발 절차가 끝날 예정이다.

새 조사팀 구성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WHO에 코로나19 기원 조사의 재개를 압박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공개적 또는 사적으로 조사 재개를 요구하면서 최소 1명 이상의 미국인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